

성 클레멘테 성당 한인공동체

Korean Catholic Community of San Clemente Mission Parish

주임신부 전흥식 요아킴 | Tel (661) 871-9190 | 1305 Water St., Bakersfield, CA 93305
Fax (661) 873-7286 | 홈페이지 www.sanclementemission.org | 통권 제 29 권 31 호



주일 미사: 오전 8 시 (한국어, 영어), 오전 9 시 30 분(영어), 오전 11 시(스페인어)
토요일 미사: 오후 6 시(스페인어)
평일미사: 월, 화, 목요일에는 오후 6 시. 금요일에는 오전 9 시 30 분
고백성사: 월, 화, 목요일 평일미사 전 (오후 5:30 ~ 5:50) 또는 시간약속을 요함.
성체조배: 매월 첫째 목요일 오후 6 시 30 분
평신도 협의회 임원회의: 매월 둘째 일요일 오후 7 시
성당사무실 시간: 화요일 ~ 금요일(9:30AM ~ 6:00PM)
한인 공동체 이메일: sanclemente.kc@gmail.com

미 사 성 가	입당 (22)	봉헌 (215)	성체 (166)	파견 (29)
---------	---------	----------	----------	---------

제1독서 | 1열왕 19,16-19-21

화답송 | 시편 16(15),1-2가과 5.7-8.9-10.11(◎ 5가 참조)

- ◎ 주님, 당신은 제 몫의 유산이시옵니다.
- 하느님, 저를 지켜 주소서. 당신께 피신하나이다. 주님께 아뢰나이다. “당신은 저의 주님.” 주님은 제 몫의 유산, 저의 잔. 당신이 제 운명의 제비를 쥐고 계시나이다. ◎
- 저를 타이르시는 주님 찬미하오니, 한밤에도 제 양심이 저를 깨우나이다. 언제나 제가 주님을 모시어, 당신이 제 오른쪽에 계시니 저는 흔들리지 않으리이다. ◎
- 제 마음 기뻐하고 제 영혼 뛰노니, 제 육신도 편안히 쉬리이다. 당신은 제 영혼 저승에 버려두지 않으시고, 당신께 충실한 이에게 구령을 보지 않게 하시나이다. ◎
- 당신이 저에게 생명의 길 가르치시니, 당신 얼굴 뵈으며 기쁨에 넘치고, 당신 오른쪽에서 길이 평안하리이다. ◎

제2독서 | 갈라 5,1.13-18

복음환호송 | 1사무 3,9; 요한 6,68

- ◎ 알렐루야.
- 주님, 말씀하소서, 당신 종이 듣고 있나이다. 주님께는 영원한 생명의 말씀이 있나이다. ◎
- 복음 | 루카 9,51-62

성소를 위한 기도

- 좋으신 목자 예수님,
주님께서는 사도들을 부르시어
사람 낚는 어부가 되게 하셨습니다.
- 비오니, 오늘도
믿음직한 젊은이들을 많이 부르시어
주님의 제자로 삼으시고, 주님의 일꾼으로 삼으소서.
- 온 인류의 구원을 바라시는 주님,
온 세계의 수많은 사람들이
진리의 빛과 사랑의 불을 갈망하고 있사오니
- 많은 젊은이들이 그 갈망에 응답하여
땅 끝까지 복음을 전하며
세상의 빛과 소금이 되게 하소서.
- 주님, 슬기로운 여성들을 많이 부르시어
주님께 자신을 봉헌하여 복음의 완력으로 나아가게 하소서.
- 또한 주님의 몸인 교회에 봉사하며
도움과 사랑을 애타게 바라는 이웃들에게 헌신하게 하소서.
- ◎ 아멘.

◆ 주일 미사 전례 봉사자 ◆

날짜	미사해설	독서	복사
6/30	이 그레이스	이 요한	박 다니엘
7/7	유 요한	이 요한	박 다니엘
7/14	이 마틸다	이 요한	박 다니엘
7/21	이 그레이스	이 요한	박 다니엘

영어독서: 손 데레사

우리의 정성

지난 주일	봉헌금	2 차 봉헌	교무금
	\$225	\$	\$

성당 청소 봉사자 일정

청소시간은 매주 토요일, 오후: 3 시 입니다.

궁금한 사항은 이 요한 총무님께 문의 하시기 바랍니다.

6/1	이 요한/ 이 마틸다	7/6	김유스티노/ 김유스티나
6/8	유 요한/ 유 마리아	7/13	김 마론/ 김 헬레나
6/15	이 그레이스/ 김 마르타	7/20	박 바오로/ 박 세라피나
6/22	홍 마르코/ 홍 아네스	7/27	손 아놀드/ 손 쟈마
6/29	김 요아킴/ 고 안나	8/3	이 글라라/ 장 글라라

질병으로 고통 받는 분들을 위한 기도

공동체나 이웃에서 병환으로 힘든 시간을 보내시고 있는 형제, 자매님들 그리고, 힘들고 어려운 상황에 있는 분들이 조속히 병환과 어려움을 이겨내시길 바라는 기도 부탁 드립니다.

말씀의 이삭

어머니

-임두빈 안드레아 | 생활성가 가수-

사는 동안 행복했던 시간은 짧게 느껴지고, 시련의 시간은 왠지 길게 느껴집니다. 또한 나이가 들수록 갑작스러운 주변인의 부고 소식은 조금은 나태했던 일상과 신앙에 잔잔한 곁손을 불러옵니다. 그때부터 잊고 있던 지인들의 안부와 가족의 건강에 마음이 쓰이고, 천년만 년 사실 것 같은 부모님께 다하지 못한 마음을 반성하게 됩니다. 다행히 저는 부모님 두 분 모두 살아계십니다. 부모님께서 저에게 주셨던 무한한 신뢰와 사랑을 알면서도 전화가 오면 바쁘다는 핑계로 통명스럽게 전화를 받고, 휴무 날엔 집에서 지친 몸을 마음껏 뒹굴거리고 싶지만 무엇을 자꾸만 해달라고 하시는 어머니와 세상 전반에 관한 토론으로 자꾸만 말을 걸어오시는 아버지가 마냥 귀찮아 후회할 투정을 했던 기억에 눈시울이 붉어집니다. 좋은 곳에 가면 “모시고 가야지!” 맛있는 음식을 먹을 때면 목이 메어 울컥한 마음에 “잘해야지! 진짜 잘해야지! 살아계시는 동안에 효도해야지!” 하면서도 참 말처럼 쉽게 되지 않습니다. 어디 감히 저의 부족한 마음을 부모님의 마음에 견줄 수 있을까요? 저는 루카복음 15장의 말씀, 돌아온 탕자처럼 부모님께 근심만 안겨드린 아들이었습니다. 그렇지만 저의 어머니는 성모님 같은 분이셨습니다. 저의 어머니께서는 4살 때 6.25를 겪으셨습니다. 전쟁 중에 피난을 다니시고, 먹을것이 없던 시절 굶지 않기 위해 꽃다운 12살에 남의 집 더부살이로 들어가 부엌일과 그 집의 6남매를 업어 키우셨습니다. 찡기고 남은 누룽지를 먹으며, 눈물이 마를 날 없는 고통스러운 나날을 보내시다가 구교

공동체 소식

성체조배: 매달 첫째 목요일 오후 6시 30분

성체조배를 통하여 예수님과 더욱 가까워지는 시간 되시기를 바랍니다. 오는 성체조배는 7월 4일 입니다.

한인공동체 임원회의: 매달 두번째 일요일 오후 7시 30분

임원 분들께서는 꼭 참석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는 임원회의는 7월 14일 입니다.

공동체 기도성가 모임: 매주 수요일 오후 8:00

기도성가와 말씀 나눔, 기도로 이루어지는 은혜로운 시간을 많은 형제, 자매님과 함께 하기를 희망 합니다.

장소: 6351 Aker Rd. #7, Bakersfield. CA 93313

성경공부: 주일미사 후 친교실에서 (셋째 주 제외)

매주 미사 후 코린토 후서로 성경 공부를 합니다. 형제 자매님의 많은 참여를 바랍니다.

소 공동체 모임: 매주 셋째 주일 미사 후 친교실

다음 모임은 7월 21일 미사 후 친교실 입니다.

영적 예물 봉헌 카드: 전요아킴 신부님 영명축일(7월 26일)

지난 주 박 벨라렛다 자매님이 나누어주신 영적예물 봉헌카드에 기도하신 내용을 기재하시고 7월 20일 까지 성당 입구에 비치된 봉헌함에 넣어 주시기 바랍니다.

집안의 아버지를 만나 입교하시고, 신앙의 힘으로 지금 까지 살아오셨습니다. 글을 배운 적 없는 어머니께서는 성경 말씀이 너무나 읽고 싶으셔서 늦은 나이에 눈물을 흘리시며 악착같이 홀로 글을 깨우치셨습니다. 제가 어릴 적 화장실이 매우 좁았는데, 화장실 변기에 앉으면 코앞 벽에 뽀뽀뽀한 글씨와 알 수 없는 맞춤법으로 뽀뽀하게 써진 성경 말씀이 매일 같이 붙여져 있었습니다. 저는 매일 이게 뭐냐고 투덜거렸지만, 지금 생각하면 몽클한 마음이 듭니다. 글씨체와 맞춤법의 발전과 함께 신앙인으로 성장했던 저의 시간은 그냥 얻어진 것이 아니라 좋은 것이 있다면, 하나라도 더 먹여 주시고 자 했던 어머니의 믿음과 사랑의 결과였습니다.

늘 가장 낮은 곳에서 보이지 않게 굶은일을 도맡아 봉사 하셨던 어머니를 통해 하느님의 사랑을 배우고 느꼈습니다. 이제 저도 어머니의 거울이 되어 하느님의 착실한 도구가 되기를 바라며, 부모님께 효도하는 착한 아들이 되기를 희망합니다.

하느님께서 도와주시면 어떤 담이라도 뛰어넘을 수 있고 나의 하느님께서 힘이 되어주시면 못 넘을 담이 없습니다.(공동번역성서 시편 18,29)

복음묵상

너는 가서

하느님의 나라를 알리라.

(루카 9-17)